

주제회의  
가사노동의 젠더 불평등

##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가사 수당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1. 가사수당제도, 왜 도입해야 하는가?

○ 가족 구성원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가정관리, 가정생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가정 내 가사노동이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가사노동은 육체노동, 기획 및 정신노동, 구성원 간의 관계 및 감정(정서)노동 등 다차원적 노동이 수반됨. 가사노동으로 지탱되는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가족 구성원의 학교생활, 직장 생활, 사회참여 등에도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은 가정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 및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필수노동이자 공익적 활동임.

○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확립 과정에서 공(일터)/사(가정) 영역의 분리, 성별분업(일터=남성, 가정=여성)의 강화와 함께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가정 내 가사노동은 무급의 ‘아무나 하는 일’, ‘허드렛일’로서 무가치화 되거나 저가치화되어 왔음. 가정 내 가사노동의 저가치화는 공적 노동시장 가사노동자들의 저임금화로 이어짐.

○ 1930년대부터 가사노동의 생산성과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970~80년대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을 시작으로 가사노동 임금 투쟁 및 캠페인 운동이 확산됨. 이에 따라 가정 내 활동에 대한 ‘노동’으로서의 의미 부여와 ‘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평가 및 정책화 작업이 이루어짐. 가사노동의 가치 제고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 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따르면,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490.9조 원으로 명목 GDP 대비 25.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또한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949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3.3%가 증가함. 가사노동은 가족 구성원 및 공동체의 정서적 안정 및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감정 및 정동 노동, 관계 노동을 포함하고 있기에 경제적, 물질적 가치로만 환원할 수 없는 비물질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음.

○ 가사수당제도는 가사노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존중 문화와 가사노동분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상징성을 갖는 정책임. 광주형 가사수당제도를 도입,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광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규모 등이 설계되어야 함.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직접적인 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광주형 가사수당제도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전국 최초로 인정한다는 점, 나아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2. 정부 및 지자체 수당제도 현황과 시사점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현금성 수당제도, 가사 서비스 관련 지원제도, 가사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논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부모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령연금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중장년층은 이러한 수당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사회보장제도와 현금성 지원제도, 가사 지원 서비스 사업의 한계,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가사노동의 가치 실현 방안, 기본소득과 가정 내 성별분업, 주부 연금 신설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제도 현황	시사점
사회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임</li> <li>☞ 국민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돕는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는 대상과 내용이 더욱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함</li> </ul>
생애주기별 현금성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주요 현금성 지원제도는 출산, 영유아 자녀 양육과 취업 및 근로 유지, 실업 등 위기 상황 대응과 특정 대상·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li> <li>☞ 청소년 및 자립 전 성인 자녀, 부모 돌봄의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와 경제적·심리·정서적 노동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고, 생애주기별로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재함</li> </ul>
가사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가사노동에 대한 심리적 건강 지원과 가사 효율을 지원하고 있음</li> <li>☞ 실질적인 가사노동의 가치 존중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li> <li>▪ 임신부와 맞벌이 가구,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가사서비스 지원임</li> <li>☞ 가사서비스의 공공지원이 확대될 경우, 민간영역과 이해충돌 우려와 가사서비스 제공자의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제도 주장	시사점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가사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SDGs에 '가사노동 존중'을 명시하고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의 비율 지표 수립과 통계산출 방법을 개발할 예정임</li> <li>☞ 실질적인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책임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함</li> </ul>
기본소득과 성별 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소득이 가정 내 가사(돌봄)노동의 성별분업을 완화 또는 강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함(박수범, 2019)</li> <li>☞ 가사수당은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존중 문화 확산과 동반될 때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여 성별분업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li> </ul>
'주부연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연금을 통해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여성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연금방식은 노후보장의 성격이 강해 현재의 가사노동가치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어려움. 주부연금은 국민 연금제도 실현과 연계해 설계할 필요가 있음</li> </ul>

### 3. 가사노동 및 가사수당제도에 대한 광주시민 인식조사 결과와 시사점

○ 광주시민을(유효표본 1,045명) 대상으로 2023년 2월 27일~3월 23일까지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 가사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는 소득수준이 낮은 40~50대 가구에 월 10만 원 이하를 가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시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사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80.5%, ‘반대’ 7.5%, ‘잘 모르겠음’ 12.1%로 시민 10명 중 8명은 찬성
- [가사수당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미성년 자녀 수’ 63.3%, ‘가구소득 수준’ 56.7%, ‘부모부양 여부’ 47.0%
- [가사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인식]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우선 지급’ 92.2%, ‘돌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사수당 제외’ 64.7%, ‘전업 가사노동자에게만 지급’ 62.6%, ‘1인가구도 지급 고려’ 55.5%
- [가사수당 지급 필요 연령대] ‘40대’ 89.6%, ‘50대’ 82.7%, ‘60대’ 54.9%, ‘30대’ 51.6%
- [가사수당 지급 대상의 가구 소득 수준] ‘중위소득 100% 이하’ 33.7%, ‘중위소득 80% 기준 이하’ 8.9%,
- [가사수당 적정 지급액] ‘월 15만 원 이하’ 40.8%, ‘월 10만 원 이하’ 33.5%, ‘월 5만 원 이하’ 19.3%
- [가사수당 도입 시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91.8%, ‘가정경제에 도움’ 90.5%, ‘가사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 88.3%,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88.2%

○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주요 결과	시사점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 광주시민은 가사노동을 ‘의·식·주 관리’, ‘가족 돌봄’, ‘기타 가정관리’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돌봄을 가사노동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가족 돌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li> <li>☞ 가족 돌봄 가사전담자 복지 수요 확인</li> </ul>
가사노동 실태	▣ 가사노동 시간은 평일 여성 3.5시간, 남성 2.0시간, 주말 또는 휴일 여성 4.7시간, 남성 3.1시간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더 길지만, 시간으로 측정될 수 없는 정서적 수고나 비중, 노동 강도는 측정되지 않음</li> <li>☞ 시간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가정 내 정서 노동에 대한 인정 필요</li> </ul>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에 대한 태도	▣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태도가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내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부여는 가정 내 가사전담자 뿐 아니라 가정 밖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li> <li>☞ 가사수당 도입과 가정 밖 가사노동자에게 미치는 긍정 효과 기대</li> </ul>
가사수당제도 도입 관련 의견	▣ 가사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조건은 자녀 수, 가구소득, 부모부양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수당 지급 대상 조건은 자녀나 부모를 돌보는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시민 정서가 확인됨</li> <li>☞ 시민 정서로 확인되는 가사 수당 지급 대상은 자녀, 부모를 돌보는 가구임</li> </ul>
	▣ 가사수당 적정금액은 ‘월 10만 원 이하’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당의 적정성 여부는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체감 정도가 다를 수 있음</li> <li>☞ 제도가 지속성을 가질 때 지급액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li> </ul>
가사수당제도 기대효과	▣ 가사수당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기대가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수당(지역화폐 지급)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시민의 공감 정도가 확인됨</li> <li>☞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시민 기대치가 확인됨</li> </ul>

#### 4. 가사수당제도 추진방안

##### 가. 수당 지급 대상 발굴

○ 수당 지급 대상은 전문가 TFT 회의, 시민 인식 실태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이 과중할 것으로 예측되는 계층, 정부나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을 더 수행하거나 가사노동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계층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음. 결론적으로 우선 지급대상은 40~5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소년 및 자립 전 성인 자녀(9~24세) 또는 65세 이상 부모(편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의 가사 수행자(남성 포함)이며, 가사와 돌봄 노력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4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제외한 가구임.

##### 나. 사업 추진 방향

- 가사수당제도 근거 마련
  - 「광주광역시 가정 내 가사노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 가정 내 가사노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 광주형 가사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 가사수당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평가와 시민 만족도 평가, 향후 지속화를 위한 개선 과제 등을 확인하고 단계적 확대
- 가사수당제도의 사회적 효과 측정 및 모니터링
  -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정 내 가사 부담 실태 등 효과 측정 및 모니터링 추진
- 광주형 가사수당제도의 사회적 효과 홍보 및 제도 확산 도모

